

忠北 題詠詩의 樣相

金 美 善*

<目 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修辭的 寫實美의 特質 |
| II. 작품내용의 樣相 | IV. 문제의 정리 |

<국문 초록>

본고는 忠北의 題詠詩를 통하여 忠北지역의 정서 및 역사, 지역의 특성을 고찰 하였다. 忠北지역에는 많은 史蹟·名勝·山水·樓亭·書院·鄉校·影堂 등이 있어 ‘生居鎭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勝景과 교육 중심의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이렇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忠北을 노래한 題詠詩를 통하여 忠北의 제반 분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제의 제기에서 필자는 忠北 출생으로서 지역 題詠詩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忠北 題詠詩의 문예 미학상에 드러난 면모를 통하여 忠北지역의 위상을 찾아보고자 함을 연구 목적으로 밝혔다. 연구 범위의 지역으로는 高麗時代 忠北의 해당 縣으로 忠州牧에 槐州·堤州와 淸州牧의 淸州·鎭州의 주변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범위 내용으로는 忠北지역의 寺刹·樓亭·山水를 題詠한 작품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론에서 忠北 題詠詩 작품내용의 樣相을 ‘脫俗의 寺刹·交遊의 樓亭·眞景의 山水’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렇게 忠北 題詠詩의 양상에 비추어 본 修辭的 美의 特質은 寫實性을 중심으로 탐착하였다. 題詠詩의

* 淸州大學校 漢文教育科 助教授 / hawoodang@hanmail.net

수사적 특질인 寫實美는 제영시가 대상에 대한 情·景을 작자의 氣로 빚어낸 작품 속에서 대상을 寫實的으로 표출하려는 수사적 특징임을 고찰하였다. 李安訥의 「題淸州東軒」, 金昌翁의 「鵲川無梁」, 徐居正의 「忠州萬景樓」를 통하여 사실미가 제영시에 나타난 수사적 傳統美로 고찰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충북의 명승 유적지 및 역사를 제영시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고의 전개과정 에서 소재로 삼은 모든 지역들은 필자가 모두 다 답사를 하였고, 유년 시절부터 익숙한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충북의 대표 지역으로 칭송하는 곳과 지역인이 아니면 관심을 두기 어려운 지역을 아울러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충북의 제영시를 통하여 충북의 地理·歷史·行政·宗教·教育·文化·人物 등 제반 분야가 제영시를 통한 문학사상에 드러난 면모를 확인하고 그 위상을 가늠해 보았다.

【주제어】 제영시, 충북, 진천, 충주목, 속리산

I. 문제의 제기

본고에서는 忠北의 題詠詩를 주제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람에게는 사고와 감정을 표기 할 수 있는 수단인 언어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漢詩文學은 우리 옛 선현들의 사고와 정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르라 하겠다. 특히 지역을 노래한 제영시는 그 지역의 地理·歷史·行政·宗教·教育·文化·人物 등 제반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어 진다.

이에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필자가 충북 출생으로서 지역 제영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심으로 충북 지역이 한시문에 미학상에 드러난 면모를 고찰하여 충북지역의 정서 및 역사, 지역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한발 다가가고자 한다. 충북지역은 高麗時代 해당 縣으로 忠州牧에 槐州¹⁾·堤州²⁾가 있고 淸州牧에는 淸州³⁾·鎭州⁴⁾가 있다. 이를 본고의 연구 범위 지역으로 삼기로 한다. 충북지역에는 많은 史蹟·名

勝·山水·樓亭·書院·鄉校·影堂 등이 있다. 명승지로서의 古刹은 法主寺·榮泉寺·榮恩庵·白蓮庵·地藏寺·大雲寺·空林寺 등이 있으며, 樓亭으로는 淸風寒碧樓·華陽巖樓齋·忠州萬景樓 등이 있고, 山水로 俗離山·華陽九曲·丹陽八景·月嶽山 등을 꼽는다. 이러한 충북지역의 사찰·누정·산수의 지역을 제영한 작품을 본고의 연구 범위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충북 제영시 작품내용의 樣相을 ‘脫俗의 寺刹·交遊의 樓亭·眞景의 山水’로 분류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이후 이러한 내용양상 고찰을 통하여 검토된 修辭的 美의 特質은 寫實美에 바탕을 두어 고찰 할 것을 본 논고의 방향으로 제기한다. 충북지역은 뛰어난 승경이 많고 이러한 勝景을 배경으로 하여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자연히 학자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자연의 무대가 되었을 것이니, 충북지역에서 활동하고 또는 이곳의 승경을 사랑하여 유람한 시인묵객들로 부터 많은 題詠詩가 남겨져 있다.

본 논고에서는 충북지역을 소재로 한 제영시를 그 논제로 삼아 지역 문화와 역사 및 자연의 승경을 검토하며 동시에 한시문학의 제영시에 드러난 충북지역의 위상에 접근해 가기로 한다.

II. 작품내용의 樣相

작품내용의 양상은 脫俗의 寺刹·交遊의 樓亭·眞景의 山水로 대별한다. 먼저, 탈속의 사찰에서는 충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인 報恩郡 法主寺·鎭川郡 地藏寺·槐山郡 空林寺의 禪家 공간을 제영시를 통하여

-
- 1) 지금의 괴산군
 - 2) 지금의 제천군
 - 3) 지금의 청주시 및 청원군
 - 4) 지금의 진천

그 위상에 접근하기로 한다.

1. 脫俗의 寺刹

전통사찰은 일반 사대부들에게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隱士의 處世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신라 이래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하였기 때문에 사찰이 사대부들의 일상과 밀접할 수 있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비록 표면적으로 불교가 배척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대부들에게 학문과 문학의 중요한 공간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문인들이 사찰의 탈속한 공간에 대한 감회를 題詠 한 것이 많이 있고, 또 후대의 詩選集에 酬酌으로 수록된 작품에도 儒·佛 수창의 시들이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 제영시의 전형으로 崔致遠의 「登潤州慈和寺上房」⁵⁾·朴仁範의 「涇州龍朔寺閣兼東雲栖上人」⁶⁾·朴寅亮의 「使宋過泗州龜山寺」⁷⁾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충북의 대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은군 법주사가 있고 이외에 복천암·화광사·약수암·낙가사·탈골암·수정암 등이 있다. 法主

- 5) 『東文選』 卷12 “登臨翹隔路岐塵 吟想興亡恨益新 畫角聲中朝暮浪 青山影裏古今人 霜摧玉樹花無主 風暖金陵草自春 賴有謝家餘境在 長教詩客爽精神”
『기아』·『대동시선』에는 제목이 「登潤州慈和寺」로 되어 있으며, 『대동시선』에는 ‘境’이 ‘景’으로 되어 있다.
- 6) 『東文選』 卷12 “羣飛仙閣在青冥 月殿笙歌歷歷聽 燈撼螢光明鳥道 梯回虹影倒巖扃 流水何時盡 竹帶寒山萬古青 試問是非空色理 百年愁醉坐來醒”
『삼한시귀감』에는 제목이 「涇州龍朔寺閣」으로, 『청구풍아』·『기아』·『대동시선』·『백운소설』·『동인지화』에는 「涇州龍朔寺」로 되어 있고, 『삼한시귀감』에는 ‘倒巖扃’이 ‘到巖扃’으로, 『기아』·『대동시선』에는 ‘空色理’가 ‘空色裏’로 되어 있다.
- 7) 『東文選』 卷12 “巉巖怪石疊成山 上有蓮坊水四環 塔影倒江翻浪底 磬聲搖月落雲間 門前客棹洪濤疾 竹下僧碁白日閑 一奉皇華堪惜別 更留詩句約重攀”
『삼한시귀감』에는 ‘翻’이 ‘蟠’으로 되어 있다. 『기아』·『대동시선』에는 ‘洪濤疾’이 ‘洪波疾’로, 『삼한시귀감』·『백운소설』에는 ‘洪波急’으로, 『소화시평』에는 ‘滄波急’으로 되어 있다.

寺⁸⁾는 신라시대에 처음 法燈을 밝혀 지나간 세월 동안 사찰 안팎의 수많은 유물과 유적⁹⁾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미륵신앙의 요람지인 龍華三會說法道場이다. 고려 충숙왕 때 문인 朴孝修(?~1337)가 題詠한 「偶題俗離寺」¹⁰⁾를 본다.

嵯峨四面碧芙蓉	높이 솟은 사면의 푸른 봉우리 연꽃 같고
長岬靈源第幾重	긴 곳 신비한 물 근원은 몇 겹이나 될까?
文藏臺封千古蘇	문장대 위로는 천 년의 이끼가 덮여 있고
于陋窟蔭萬株松	우타굴 앞엔 만 그루 소나무가 가려 졌네
龍歸塔裏留眞骨	용은 탑 속에 들어가 진골로 머물러 있고 ¹¹⁾
驟臥岳前訪聖蹤	노새 바위 앞에 쉬며 성스런 도량 찾았네 ¹²⁾
永福三韓誰是主	삼한을 길이 복되게 할 주인 그 누구가?
珊瑚殿 ¹³⁾ 上紫金容	산호전각 위에 金身の 위용 앉아 계시네.

8) 법주사 :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속리산에 위치. 대한불교 조계종 제 5교구본사.

9) 현존하는 건물은 1624년에 중건된 대웅전, 1605년에 재건된 국내 유일의 5층 목탑인 팔상전, 1624년에 중창된 能仁殿과 圓通寶殿이 있고 이밖에 일주문·금강문·천왕문·조사각·사리각이 있고 禪院에 부속된 대향각·염화실·옹향각이 있다. 또한 법주사의 중심법당이였으며 丈六像을 안치했었다는 龍華寶殿은 그 터만 남아 있고, 이곳에 근대조각가인 김복진이 조성한 시멘트 재질의 미륵불상이 1964년에 세워졌는데 1986년 이를 다시 헐고 1989년 초파일에 높이 33m의 청동미륵불상을 點眼하였다. 이밖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石蓮池(국보 제64호)·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新法天文圖屏風(보물 제848호)·괘불탱(보물 제1259호)과 지방지정문화재인 세존사리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喜見菩薩像(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8호)·石槽(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0호)·벽암대사비(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1호)·慈淨國尊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9호)·괘불(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9호)·鐵鑊(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3호) 등이 있다.

10) 『東文選』 卷16.

11) 慈淨國尊碑 : 고려 후기의 명승인 慈淨國尊(1240~1327)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미륵대불상이 있는 법주사 동편의 암벽을 파고 빗돌이 끼워져 있다.

12) 법주사라는 절 이름은 義信스님이 서역으로부터 불경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 이곳에 머물렀다는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박효수의 제영시를 통해 거의 800년 전의 법주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먼저 首聯에서 법주사를 배경으로 한 속리산 주변 봉우리가 연꽃 송이 같다고 하였다. 속리산은 최고봉인 천황봉을 중심으로 비로봉·길상봉·문수봉·보현봉·관음봉·묘봉·수정봉 등 8개의 봉우리와 문장대·입석대·경업대·배석대·학소대·신선대·봉황대·산호대 등 8개의 대가 있다. 산 전체를 뒤덮은 울창한 松林과 더불어 금강·한강·낙동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에 작자는 법주사를 연꽃 꽃심으로 두고 주변 봉우리가 연꽃잎으로 둘러친 모습을 바라보며 여기 봉우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수정처럼 맑은 물은 몇 구비나 될까? 하며 脫俗한 법주사를 묘사하였다. 額聯에서는 문장대에는 천년의 이끼가 덮여 있고 우타굴 앞에는 만 그루의 소나무가 가려져 있다 하였다. 문장대는 해발 1,033m높이로 속리산의 한 봉우리이며, 문장대에 오르면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문장대는 바위가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一名 雲藏臺라고도 한다. 문장대를 올라가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안내판에 ‘문장대를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俗說을 전하고 있다. 또한 법주사 주변에는 赤松君子로 둘러쳐 있다. 조선 세조로부터 정2품의 벼슬을 하사받은 정2품 소나무로 부터 희귀종인 金松도 있다. 산중의 이 雪害木 소리를 경책삼아 법주사 스님들이 정진하다고 한다.

頸聯에서는 법주사 경내에 있는 慈淨國尊碑를 둘러 본 모습을 그렸다. 자정스님은 1324년(충숙왕 11)에 國尊에 책봉 되었고 이후 법주사에서 정진하다 입적하여 법주사에 부도탑을 봉안하였다. 또한 법주사라는 사찰명칭이 義信스님이 서역으로부터 불경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 이곳에 머물렀다는 설화에서 유래된 것임을 회상하며 작자는 법주사 마당을

13) 珊瑚殿 : 龍華寶殿으로 丈六像을 안치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청동미륵 대불을 모셨다.

걸으며 佛法이 머무르는 곳임을 상기 하였다. 尾聯에서는 우리나라 三韓을 영원히 佛國淨土로 복되게 할 수 있는 성인이 누구 일까? 반문 하며, 바로 珊瑚殿에 모셔져 있는 金身丈六像의 부처님이 있다고 우리나라 3대 미륵사찰의 도량으로서의 탈속한 고찰을 제영하였다.

다음은 충북 진천 지역 사찰 제영시로 소재론적 접근을 위하여 지역 사찰을 들어 보면¹⁴⁾, 榮泉寺·榮恩庵·白蓮庵·地藏寺·大雲寺 등이 있다. 이 중에, 蔡之洪(1683-1741)의 「地藏寺」¹⁵⁾ 제영이다.

琳宮肅肅靄雲深	조용한 사찰 상서로운 구름 가득한데
一點尼珠萬古心	한 알 염주에 만고의 마음 담겨 있네.
屈指低頭何所索	手印 ¹⁶⁾ 맺고 고개 숙여 무엇 찾는가?
冥觀應了去來今	고요히 參究하면 三生을 깨우치리라.

지장사¹⁷⁾의 위치는 진천군의 남쪽으로 2리가 되는 潛德山에 자리한 신라시대의 古刹이라하나 지금은 폐사가 되었다. 사찰 제영시는 절의 위치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 내느냐가 좋은 작품이 되는 관건의 하나라 하겠는데, 이 작품의 起句에서 잠덕산 깊은 곳에 자리한 절의 위치와 모습을 그대로 말 해주고 있는 듯 하다.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탈속한 공간인 지장사에 오르면 저절로 속세의 번뇌가 소진 되어 질 것 같다. 承句에서는 한 알의 摩尼珠에 만고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화엄경에 나오는 “重重無盡”이라는 구절에 이른 듯 ‘摩尼’는 ‘摩尼寶珠’의 준말로 ‘摩尼’ 또는 ‘末尼’라고도 음역한다. 또한 ‘摩尼’란 말이 ‘寶珠’ ‘離垢’란 뜻을 갖고 있으며, 구슬의 총칭으로도 쓰인다. 『圓覺經』에 ‘摩尼’는

14) 『常山誌』 卷上, 「社寺」편을 근거자료로 함.

15) 『常山誌』 卷下, 「詞藻」, p.90.

16) 手印 : 손과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수많은 상징적 모양.

17) 『常山誌』 卷上, 「社寺」에는 “地藏寺在潛德山距郡南二里亦羅代古刹”라 하였고, 『常山誌』 卷上, 「山川」 “潛德山自吉祥南來峯下有芝藏寺……”라 하여, 「社寺」에는 「地藏寺」라 되어 있고, 「山川」에는 「芝藏寺」라 되어 있다.

곧 ‘如意’라 했으니, ‘摩尼珠’는 ‘如意珠’를 뜻하며, 『涅槃經』에서는 ‘마니주를 흐린 물에 던지면 물이 맑아진다’고 하였으니, 불보살이 지닌 구슬과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이 여의주, 곧 마니주이다. 여기에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는 곧 일체이고, 일체는 곧 하나이다.”¹⁸⁾라는 설법처럼 우주만유 일체의 존재가 상호무한의 관계를 가지고 일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轉句에서 말하는 ‘屈指’와 ‘低頭’는 선문답 혹은 禪修行을 비유하는 말로 ‘굴지’는 오른손 위에 왼손을 포개고 두 엄지 손가락으로 手印을 맺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또 중국의 俱胝禪師는 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굽혀 보이는 것으로 대답을 하였다 한다.¹⁹⁾ 선사가 출타하였을 때 동자가 선사의 흉내를 냈는데, 선사는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 하산시키면서 뒤에서 동자를 부르고 돌아보는 동자에게 선사는 역시 손가락을 굽혀 보였다고 한다. ‘低頭’는 참선할 때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으로 禪修行者의 參究하는 모습을 말한다.

結句에서는 마치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지장사 법당에서 엄주 알을 굴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참선에 들기도 하며 정진하는 수행자를 바라보며 평상심으로 ‘고요히 참구하면 三生을 깨치리라’ 하였다. ‘過去心不可得 現在心 不可得 未來心 不可得’²⁰⁾이라 하였거늘 지장사의 탈속함이 ‘一切法無我’의 理致를 설법하는 듯하다.

다음은 충북 괴산군의 空林寺²¹⁾ 제영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림사는 충북지역의 名山으로 꼽히는 落影山²²⁾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의

18) 義湘大師, 「法性偈」, “一中一切 多中一 一卽一切 多卽一”

19) 선종의 화두인 ‘俱胝一指’이다. 또는 ‘俱胝指頭禪’이라고도 한다. 俱胝禪師가 學人이 물으면 오직 一指를 들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 『金剛經』

21)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806번지에 위치.

22) 낙영산의 명칭유래로 신라 진평왕 때에 당 고조가 세수를 하려고 세숫물을 들여다보는데 아름다운 산의 모습이 세수 대야에 비쳤다. 이를 이상히 여긴 당 고조는 신하를 불러 이 산을 찾도록 했는데 당나라 땅내에서 이를

대표적 명찰 가운데 하나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범주사의 말사이다.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제영 「空林寺中詠懷」²³⁾이다.

洞裏烟霞鎖欲開	산골짜기 가득 찬 안개 걷히려는데
夜深星斗暫徘徊	깊은 밤 별빛 아래 잠시 배회 했네
想得潭溪秋月白 ²⁴⁾	시냇물에 가을 달빛 밝음 생각하니
此生何日溯洄來	이생 어느 날 다시 올 수 있을까?

라고 하였으니, 송시열이 落影山 空林寺 인근 華陽九曲 巖棲齋에서 만년을 보내면서 널리 소문난 공림사에 들러 뛰어난 절경을 둘러보고 이 시를 남긴 것이다. 공림사 입구에는 두꺼비 모양의 큰 바위가 있고, 낙영산 전체가 온통 흰 바위인 돌산의 계곡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長廣舌²⁵⁾의 설법이라 할 수 있다. 蘇東坡는 「悟道頌」에서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니, 산 빛이 어찌 淸淨法身이 아니리오? 밤에 듣는 팔만 사천 계송을 다른 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자연의 설법을 통해 오도한 경지를 남긴 흔적이 있다. 여기서 우암 송시열은 시의 전반부에서 낙영산 공림사의 자연 경관 속에서 소동파가 느낀 자연의 설법을 술회하였다. 낙영산 깊은 골짜기에 안개가 가득하여 신선의 별유천지와 다를 바가 없는데, 밤이 깊도록 공림사를 거닐며

찾지 못했다. 이러던 중 꿈에 동자승이 나타나 이 산은 당나라 땅이 아니라 신라 땅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신라로 사신을 보내 이 산을 찾으려 했으나 이 역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사신이 낙심하며 당나라로 돌아오던 중, 길에서 한 도승을 만나게 되었고 도승이 산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사신이 이를 따라 이곳에 도착해보니 정말 당고조가 얘기한 그 산이 우뚝 솟아있었다. 이후 이산을 “당나라 땅에 그림자를 드리우다”는 뜻의 낙영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전통사찰관광종합정보)

23) 『宋子大全』 卷2.

24) 『朱子全書』 卷,66, 「齋居感興·二十首 中 其十」, “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魯叟何常師 刪述存聖軌”

25) 蘇東坡, 「悟道頌」,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淸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舉似人.”

바위산을 타고 내려오는 시냇물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물소리는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고, 산천초목은 그대로 청정법신의 모습으로 위용을 갖추고 있는 낙영산 공림산은 탈속한 불교사찰의 공간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의 공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우암은 물소리를 들으며 물속에 비친 달을 바라보자니 朱子께서 「齋居感興」에서 읊조린 ‘秋月寒水の 明澄’함을 느끼며 이 생애 어느 날 또다시 찾아 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儒學者 哲人으로서의 사유와 공림사 禪家의 탈속함이 주는 공간의 조화가 저절로 感興을 일으켜 제영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報恩郡 法主寺·鎭川郡 地藏寺·槐山郡 空林寺의 제영시를 통하여 충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로서의 탈속한 공간의 위상을 확인 하였다.

다음은 충북 제영시에서 交遊의 樓亭 제영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충북지역 대표적인 교유의 누정으로 ‘槐山郡 億萬齋·淸風郡 寒碧樓·華陽洞 巖棲齋의 제영으로 범위를 두어 충북지역 교유 누정의 일면을 고찰하기로 한다.

2. 交遊의 樓亭

누각과 정자는 다르면서 같은 점이 있다. 바로 벽과 문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조선 초기 문신 孫舜孝(1427-1497)는 憑虛樓記²⁶⁾에서 “누대는 벽과 문이 없이 텅 비어 있어야 온갖 경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마음은 텅 비워야만 온갖 일을 용납 할 수가 있다. 고인의 시에 이르길 ‘마음과 대나무는 함께 텅 비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나도 또한 생각하길 마음과 누대는 함께 텅 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건에 비유한 것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그 뜻은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누각은 비어 있어야 주변의 많은 경치를 불러들일 수 있고, 마음도 비워 두어야 여러

26) 孫舜孝, 『勿齋集』 卷1, “樓虛則能納萬景 心虛則能容衆物 古人詩曰 心與竹俱空 予亦謂心與樓俱虛 寓物雖異 其意則一爾”

사물을 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의 取景 즉, 경치를 불러들이기 위해 樓亭에 마음을 비워야 선행을 쌓을 수 있다는 사유 속에서 역시 누정과 자연 사찰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공간과 우리의 儒·佛·仙三道의 전통적인 사상이 일맥상통하는 면을 짚어 볼 수 있다.

이에 勝地에 사람이 모여 들고 이러한 곳에서 人傑이 남은 당연한 일이고, 인걸이 나고 모이는 곳에 누정이 자리하며, 누정이 있으면 詩文의 題詠이니, 명승은 또 이렇게 名句의 題詠과 더불어 회자되는 법이다. 곧 樓亭 題詠의 남상이라 할 崔顥의 황학루 기행과 그 제영 「登黃鶴樓」시가 있고, 금릉의 봉황대에 올라 「登金陵鳳凰臺」시를 남긴 이백은 물론, 20대 초반에 뭇게구름 피어나는 태산을 바라보며 “내 반드시 정수리에 올라 못 산의 작음을 보고 말리라”하던 杜甫의 호방 등은 누정 제영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충북에는 이 같은 樓亭 題詠의 소재가 되어진 樓亭²⁷⁾이 여러 개 현존하고 있다. 먼저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백곡 김득신(1604-1684)의 「億萬齋」를 살펴보기로 한다.

搜羅漢宋唐秦文	진·한·당·송의 글들을 두루 찾아내서
口沫讀過一萬番	입에서 침 날리며 일만 번 읽었노라
最嗜伯夷奇怪體	백이전의 기괴한 문체가 가장 좋아서
飄飄逸氣欲凌雲 ²⁸⁾	달리는 기상으로 구름 넘고자 하였네.

柏谷 金得臣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문헌상 고증하기 어려우나 묘소는 현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울리에 있다. 김득신의 집안이 충북 괴산에 정착한 것은 그의 고조부 이후였다. 김득신은 증평 백곡저수지의 이름을

27) 『충청북도지』, 「명승고적」 참조. 충북의 대표적인 누정으로는 望仙樓·清寧閣·億萬齋·寒碧樓·上善亭·萬景樓·洗心亭·水玉亭·愛閑亭·一可亭·八詠樓·觀瀾亭 등이 유명하다.

28) 凌雲之志 : 높은 구름을 훨씬 넘는다는 뜻. ①俗世에 초연한 態度 ②俗世를 떠나서 超脫하려는 마음. 또는 용기가 매우 대단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따서 자신의 號로 삼아 柏谷·柏谷老人·柏谷病夫·柏谷溪翁·柏谷老叟·柏谷老翁·柏翁·槐江老翁·龜石山人이라고 하였는데 이 중에서 柏谷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말년에는 柏谷老人을 즐겨 썼다. 백곡이 지은 자신의 서재 「億萬齋」는 충북의 명승지로 알려 있는데 백곡이 「億萬齋」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終南叢誌』²⁹⁾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이나 지금에 학문을 쌓은 선비는 부지런함으로써 이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 문장으로 크게 올린 분들로서 글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중략) 나는 태생이 노둔하여 다른 사람보다 배나 읽었으니 (중략) 그 중에서 「백이전」을 가장 좋아해서 일억 일만 삼천 번이나 읽고는 서재를 「억만재」라고 지었다.³⁰⁾

라고 하였다. 충북 지역에 오늘날도 공부하는 글방에서 전해져오는 김득신의 일화들을 상기하면 부지런히 연마할 것을 김득신이 「백이전」을 ‘一億³¹⁾—萬三千番’이나 읽은 多讀을 예로 든다. 물론 그 당시 숫자 개념으로 ‘億’은 오늘날 우리의 ‘十萬’의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다독으로 학문의 노력형 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백곡이 다독을 한 실례는 「古文三十六首讀數記」³²⁾를 통해 상세히 살필 수가 있다.

29) 김득신, 『終南叢誌』.

30) 『終南叢誌』, “古今積學之士 靡不以勤致之 我同文章鉅公 多讀書者 亦可歷數 (中略) 余性老鈍 所讀之功倍他人 (中略) 而其中 最喜伯夷傳 讀至一億一萬三千算 遂名小窩曰億萬齋”

31) 『禮記·疏億』, “十萬爲億”

32) 『柏谷先祖文集』 5冊, 「古文三十六首讀數記」, “讀獲麟解 師說 送高閑上人序 藍田縣丞廳壁記 送窮文 燕喜亭記 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應科目時與人書 送區冊序 張君墓碣銘 馬說 朽者王承福傳 一萬三千番 讀鱔魚文一萬四千番 讀鄭尚書序 送董邵南序一萬三千番 讀十九日復上書一萬三千番 讀上兵部李侍郎書 送廖道士序一萬三千番 讀龍說二萬番 讀伯夷傳一億一萬三千番 讀老子傳二萬番 讀分王二萬番 讀霹靂琴二萬番 讀齊策一萬六千番 讀凌虛臺記二萬五百番 讀鬼神章一萬八千番 讀衣錦章二萬番 讀補亡章二萬番 讀木假山記二萬番 讀祭歐陽文一萬八千番 讀薛存義送元秀才 周策一萬五千番 中庸序二萬番 百里奚章一萬五千番 自甲戌至庚戌而中間莊子 馬史 班史 學庸 非不

「億萬齋」 제영시의 起句에서 백곡은 漢·宋·唐·秦의 文章을 두루 읽었다고 하였다. 그의 「讀數記」를 통해서도 상세히 밝혀 놓았다. 承句에서는 이렇게 독서하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여 일만 번을 읽었는데 「古文三十六首讀數記」에서는 만 번에 이르지 않는 것은 독수기에 기록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轉句에서 김득신이 古文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史記』의 「伯夷傳」임을 밝혔고, 「古文三十六首讀數記」에서 一億一萬三千番을 읽었다고 기록하였다. 結句에서는 이렇게 「백이진」을 읽고 다독 하는 기상이 어디에도 읽매이지 않고 초연 자적하게 공부하는 곳이 바로, 여기 億萬齋라고 하였다. 이렇게 충북지역의 누정에서 꼽히는 億萬齋는 지역의 명소이기도 하며 김득신과 그 당시 많은 문인들이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産室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다음은 제천에 소재한 淸風 寒碧樓³³⁾의 제영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명승지의 누정은 누정문학을 꽃피운 곳이기에 교유와 시문학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 진다. 이렇게 아름다운 누정문학을 三灘 李承召(1422-1484)가 남긴 「淸風寒碧樓」³⁴⁾이다.

行盡湖南五十城	호남지역 오십성을 두루 다녀 보았지만
勝區今日愜幽情	승경 오늘에야 그윽한 정취에 흡족하네
靑樓百尺凌雲迥	백척 푸른 누대는 구름 속으로 빛나고
翠壁千尋削鐵成	천길 푸른 산 쇠를 깎아 만든 듯 하네
山好使人思蠟屐	산이 고와 사람으로 하여 발 던게 하고
江淸邀我濯塵纓 ³⁵⁾	강이 맑아 나를 불러 갓 끈 빨게 하네
桃源未必非人世 ³⁶⁾	도원이 꼭 인간 세상이 아닌 것 아니나
擬逐漁翁送此生	고기잡이 늙은이 따라 이생 보내려 하네.

多讀 不至於萬則不載讀數記爾 若後之子孫 觀余讀數記 則知余之不惰竄于讀
庚戌季夏 柏谷老叟 題槐州醉默堂”

33)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소재한 조선 중기의 누각.

34) 李承召, 『三灘先生集』 卷4.

35) 屈原, 「漁父辭」, “滄浪之水 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 濁兮 可以濯吾足”

36) 王安石, 「扇子詞」(『四庫全書』), “靑冥風露非人世 鬢亂釵橫特地”

이승소가 제영한 청풍의 한벽루는 「寒碧樓重修記」³⁷⁾에 “崇禎甲戌九月日賓山翁李垞記”라는 跋記가 있어 1634년(仁祖 12)에 개창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900년 보수한 것이 1972년 홍수로 무너져 1975년 복원했는데 충주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해 1983년 지금의 위치인 청풍문화재단지 안으로 옮겨졌다. 누각에는 尤庵 宋時烈과 谷雲 金壽增의 편액과 秋使 金正喜의 淸風寒碧樓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이곳 한벽루는 밀양 영남루·남원 광한루와 함께 翼廊³⁸⁾이 있는 조선시대 누각 가운데 하나로 주변의 산수가 빼어났기 때문에 많은 시인 묵객 선비들의 交遊處였다. 이승소 이외에 서거정·하륜·정약용·유성룡·허균·이공익·송시열 등 당대의 유명 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었다.

이승소는 경기도 양주 출생이지만 충청도관찰사를 지내면서 충북과 인연이 있게 되었다. 그의 호인 三灘은 현재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삼탄역 서편 약 200m 지점에 있는 강변유원지이다. 기암괴석을 이룬 산 밑으로 맑은 강이 흐르는 곳으로서, 삼탄이란 여울이 셋이라는 뜻으로 맨 위에 광청소여울, 가운데 소나무여울, 맨 아래쪽의 따개비소여울을 이른다. 매우 맑고 아름다운 명소로 이승소가 유난히 좋아하여 자신의 호로 삼은 듯하다. 이승소는 이 지역 충주 제천 일대의 풍광을 둘러보았지만 청풍의 한벽루만한 곳은 없다고 하며 이제야 자신의 그윽한 심정에 흡족한 경치를 만났다고 한벽루 제영시 首聯에서 밝혔다. 額聯에서는 누대의 모습을 백척으로 비유하여 구름 속에 빛난다고 하였고, 천길 푸른 산이 깎아지른 듯 서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청풍문화재단지 안에 이전되어 있지만 원래의 자리는 飛鳳山 아래 4대 명당 중 가장 좋은 자리인 청풍면 읍리에 자리하였었다.

額聯에서 이승소는 비봉산의 수려함을 노래하며 산이 아름다워 사람들을 저절로 찾아오게 하고 주변의 흐르는 물은 너무나도 맑아 자신으

37) 李垞, 『蒼石先生續集』 卷5, 「寒碧樓重修記」.

38) 翼廊 : 대문의 좌우 양편에 잇대어 지은 행랑.

로 하여금 갓끈을 빨게 한다고 하였으니, 굴원의 「漁父詞」³⁹⁾에서 用事하여 자신이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尾聯에서는 무릉도원 같은 이곳에서 고기잡이 어옹처럼 이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술회하여 청풍 한벽루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노래하였다. 淸風은 名山을 말하고 寒碧은 깨끗한 물을 말하니, 청풍 한벽루의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자연의 도를 즐겼던 이승소의 제영을 통하여 충북 누정 제영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화양동 巖棲齋의 제영으로 우암 송시열의 「華陽洞巖上精舍吟」⁴⁰⁾이다.

溪邊石崖關	시냇가 바위 언덕 깎아지르고
作室於其間	그 암벽 사이에다 집 지었노라
靜坐尋經訓	조용히 앉아 경서 가르침 찾아
分寸 ⁴¹⁾ 欲躋攀	잠시라도 붙잡고 따르려 애쓰네.

암서재가 위치한 이곳 화양동은 우암이 말년에 은거하면서 中國의 武夷九曲을 본받아 화양동에도 9곡⁴²⁾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화양동은 송시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을 만큼 우암과 관련된 유적들로 가득하다. 華陽洞巖上精舍는 현재의 巖棲齋⁴³⁾이다. 우암이 1666년(현종 7)에 화양동으로 들어와 ‘華陽溪堂’이라는 초가집을 짓고 살다가 계곡 건너편 큰 바위 위에 주자의 雲谷精舍를 본 따 3칸짜리 집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巖棲齋’로 불리어진 精舍이다. 우암이 언제 정사를 건립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화양동에 들어 온지 3년이 지난

39) 『古文眞寶』.

40) 宋時烈, 『송자대전』.

41) 『論語』, 「里仁」 “子曰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42) 화양구곡 :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

43)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소재.

1669년경으로 추정된다. 암서재는 우암이 화양동에 머물며 참으로 아끼던 정자이자 서재였다.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화양동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까지 우암과 그의 문 제자들이 수없이 출입한 곳이다. 우암은 암서재 바위에 명나라 毅宗으로부터 받은 친필 ‘非禮不動’을 새겨 놓고 그 위에 공부하는 서재를 지었다.

암서재 제영에서는 화양동 암서재의 주변 경관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깎아지른 바위가 늘어서 있고 그 바위 사이에 서재를 지었노라 하였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여기 암서재에서 조용히 앉아 경전 속에서 성현의 가르침을 찾아 잠깐의 시간이라도 연마하고 따르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충북의 누정에서 화양동에 위치한 암서재는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과 그의 제자들의 교유처였음을 우암의 제영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槐山郡 億萬齋·淸風郡 寒碧樓·華陽洞 巖棲齋’의 제영시를 통하여 충북의 대표적인 교유의 누정을 고찰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누정에서 取景을 위한 정서가 마음을 비워 자연을 맞이하고 사람을 맞이하는 수양의 경지에서 전통적인 사상의 면모를 고찰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충북 제영시에서 眞景의 山水 제영을 살펴보기로 한다. 충북 지역 대표적인 산수로 ‘俗離山·鶴江·荊水’를 통하여 충북지역 산수의 眞景을 고찰하고자 한다.

3. 眞景의 山水

충북의 名山으로는 첫 번째 俗離山⁴⁴⁾이 있다. 우리나라 12宗山의 하나로 일컬어지며 산세가 웅대하고 수려하여 옛 선인들은 속리산을 푸른 연꽃 같다고도 하고 玉으로 빛은 연꽃 같다고 하여 光明山·智明山·離持山·九峰山·兄弟山·小金剛山·紫霞山의 8개의 異稱이 있다. 이 외에도 八字와 관련된 勝景으로 八庵⁴⁵⁾·八臺⁴⁶⁾·八峯⁴⁷⁾·八大門⁴⁸⁾이 있

44)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군 화북면에 걸쳐 위치하고 있음.

45) 八庵 : 복천암·상환암·상고암·수정암·동암·탈골암·중사자암·여적암

다. 또한 속리산 산 아래로 물줄기가 아홉 구비로 돌고, 돌면서 꺾여지는 물 구비마다 8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水晶橋와 太平橋만 남아 있다. 이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 사찰 경내에도 ‘八字’와 관련되는 捌相殿이 있다. 八相圖⁴⁹⁾를 모시고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며, 또 八殿閣⁵⁰⁾이 있다. 이렇게 속리산은 八字와 자연적인 여건에 잘 부합 되어 있다.

불법에서는 佛性を 증득하기 위한 8가지의 바른 길로 八正道⁵¹⁾가 있어 마치 儒家의 大學 八條目⁵²⁾을 통하여 君子之道를 이루는 것처럼 불가의 팔정도는 불가의 三學 즉 戒·定·慧를 닦는 중요한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불가에서는 八字의 의미가 특별한데 속리산이 법주사를 품고 있는 명산으로서의 위용에 그 의미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하겠다.

46) 八臺 : 文藏臺·慶業臺·拜石臺·鶴巢臺·神仙臺·鳳凰臺·珊瑚臺·立石臺

47) 八峯 : 天王峯·毘盧峯·吉祥峯·文殊峯·普賢峯·觀音峯·妙峯·水晶峯

48) 八大門 : 內石門·外石門·上庫內石門·上庫外石門·毘盧石門·金剛石門·上歡石門·墜來石門

49) 八相圖 : 釋迦八相·八相成道라고도 한다. 인도에서는 BC 2세기경에 이미 석가모니의 생애를 묘사한 佛傳圖가 성립되었으며, 그 내용은 出生·成道·轉法輪, 涅槃의 四相과 托胎·出遊·出家·降魔로 모두 합쳐서 팔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팔상도는 사찰의 八相殿이나 靈山殿에 봉안된다.

50) 八殿閣 : 팔상전·대웅보전·용화전·원통보전·명부전·능인전·조사각·진영각·삼성각

51) 八正道 :

- ① 正見 : 올바른 이해,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사성제로 설해지는 불교적 진리관을 확신하는 것이다.
- ② 正思惟 : 정견에 따라 철저히 실천하겠다는 각오이다.
- ③ 正語 : 거짓말, 중상하는 말, 모욕하는 말 따위를 삼가는 것이다.
- ④ 正業 : 생명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부정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 ⑤ 正命 : 불교의 가르침에 부응하지 않는 직업은 택하지 않는 것이다.
- ⑥ 正精進 : 나쁜 마음가짐을 피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계발하는 것.
- ⑦ 正念 : 신체와 감정과 사고의 움직임에 대하여 깨어 있는 것이다.
- ⑧ 正定 : 바르게 집중하여 명상하는 것이다.

52) 八條目 :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이러한 충북의 眞景 山水인 속리산을 제영한 農巖 金昌協(1651-1708)의 望俗離山⁵³⁾이다.

馬首千峯色	말 타고 일천 봉우리 다녔으나
吾今觀俗離	내 이제 속리산을 보게 되었네
半空霞不散	텅 빈 하늘 위로 안개 낀듯하여
初夏雪堪疑	초여름 눈 내렸나 의심 하였네
寺遠藤蘿外	등 닝쿨 너머로 절 멀리 비고
林香躑躅時	칠쭉 피는 때라 숲은 향기롭네
振衣違絕磴	옷자락 날려 비탈길 배회하며
空詠太沖詩	부질없이 태충 시 ⁵⁴⁾ 만 읊어보네.

농암 김창협이 속리산을 찾아와서 남긴 제영시이다. 首聯에서 작자는 우리나라 못 산수를 유람하였지만 이제서 眞景인 속리산을 찾아 왔노라고 하였다. 봄에는 산 벚꽃, 여름에는 푸른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가을엔 만산홍엽의 단풍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지고, 겨울의 설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하는 王維의 ‘詩中有畫 畫中有詩’의 眞景이다. 頤聯에서는 텅 빈 하늘 위로 안개가 낀듯하기도 하고 초여름엔 눈인가? 의심하였다 하였으니, 농암이 속리산을 찾은 계절을 알 수 있다. 초여름에 눈이 내렸나 의심하였다는 것은 속리산 입구에 들어서면 멀리로 바라보이는 천왕봉이며 문장대가 흰 바위로 뒤덮여 있어 마치 雪山 같아 보인다는 秘境이라는 감탄이다.

頸聯에서 등나무 닝쿨 사이로 멀리 절이 보인다 하였으니 바로 법주사이다. 이수광의 『芝峯類說』에 보면 白湖 林悌가 속리산에 들어와 증용을 800讀을 하고 깨달아 남긴 말로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를 멀리 하네.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는데 속세가 산을

53) 金昌協, 『農巖集』 卷3.

54) 太沖, 『詠史詩 八首』 其五(『文選』 卷21), “被褐出閭闔 高步追許由 振衣千仞岡 濯足萬里流”

떠나는 구나”⁵⁵⁾라고 하였다. 백호가 속리산에서 『中庸』의 “道不遠人”⁵⁶⁾의 구절을 읽으며 저절로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의 경지를 깨치고 남긴 말이다. 도를 멀리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산을 멀리하는 것도 세속이라 뜻이다. 원래 도나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따라서 가깝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俗離山’ 명칭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이치로 들추어 보기에 합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농암은 ‘人遠道’ ‘俗離山’하는 속에 참으로 도의 근원을 가까이 찾아 왔음을 진경의 산수 품에 철쭉꽃피는 꽃향기 가득한 속리산에 찾아든 감회를 술회 하였다.

尾聯에서 이렇게 찾아든 명산 속리산 자락을 오르지 않고 부질없이 太沖⁵⁷⁾의 시만 읊조린다고 하였다. 태충이 “베옷을 걸쳐 입고 도성 나와서, 당당한 걸음으로 허유 뒤따라, 천길 높은 산봉 위에서 옷 먼지 털고, 만리 뻗은 강물에 발을 씻노라.” 하였듯이 자신도 이 곳 속리산 명승의 산수에 찾아드니 산을 오를 것도 없이 저절로 마음이 ‘洗濯’되어져 산 빛에 눈 씻고 물소리에 귀 씻으며 속리산을 제영 하였다.

다음은 백곡 김득신의「鵲江」⁵⁸⁾이다.

沙步立騎馬	모랫벌 걸어와서 말을 세워보니
扁舟其奈無	작은 배 한 척마지 없는가?
僮人愁渡水	종은 물 건널 것을 근심하고
客子歎窮途	나그네는 막힌 길 탄식 되네
雪盡春初動	눈 녹아 봄은 막 오고 있고

55) 『芝峯類說』 卷14, “林悌入俗離山 讀中庸八百遍 得句曰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用中庸語也”

56) 『中庸』, “子曰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

57) 左思 : 西晉의 文學家. 자는 太沖. 출신이 미천하여 문벌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평생 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 『詠史詩』 8편이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시는 격조가 호방 고매하며 필력이 웅건하여 당시에 독자적인 풍격을 이룩했는데, 후세에 이를 ‘左思風力’이라고 했다.

58) 김득신, 『백곡문집』.

烏棲日欲晡 까마귀 등지 들고 해 저무네
 今宵何處宿 오늘 밤은 어느 곳서 쉬나?
 孤館古城隅 객사는 옛 성 모퉁이에 있네.

작천은 ‘까치내’⁵⁹⁾라고 불리 우며 충북 최대의 곡창지대로 예로부터 하천연안을 따라 비옥한 토지가 넓은 지대를 일컫는 지명이다.⁶⁰⁾ 청주 중심을 흐르는 무심천이 작천으로 흘러와 美湖川을 지나 錦江으로 흘러 든다. 지금 현재도 두루미가 날아들고 백로가 노니는 곳으로 지역의 墨客들이 많이 찾았던 명소이다. 백곡 김득신이 이곳 작천을 찾아 제영하였다.

시의 전반부에서 말을 타고 백사장을 걸어와 말을 세우고 작천을 건너려 하니 배 한척 없음을 말하였다. 작천의 주변은 넓고 고운 모래사장이 빼어난 곳이다. 물을 건널 나룻배마저 없으니, 말을 부리는 종도 걱정이고 나그네도 길이 막혀 탄식이다. 백곡이 물을 건너지 못하여 하는 탄식이기 보다는 民生의 꿈을 헤아리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까치내의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⁶¹⁾ 농민들은 여름 장마로 홍수가 나면 농사를 버리기도 하고 길을 오가는 사람의 발이 묶이는 것은 다반사였을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막 눈이 녹아 작천의 물은 사방 가득 하고 그 주변을 날던 까치도 등지에 드는 시간이 되었는데 백곡은 오늘밤 어디에서 묵을 것인가 객사는 멀기만 하다고 술회하였다. 백곡의 작천 제영에서 읽어내는 작천의 풍광 이외에 작천은 사방이 툭 트여서 새벽 동쪽으로는 일출이 눈부시고 저녁 서쪽으로 기우는 노을은 서원의 眞景에

59) 필자의 출생지며 거주지가 바로 이 작천 근처이다. 유년시절 소풍을 가는 장소이고 충북지역의 명소 중 하나이다. 구전되어 말에 의하면 합수머리에 흰 까치가 나왔다고 하여 ‘까치내’라고 불리어졌다는 설도 있다.

60)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소재.

61)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여름에 비만 내리면 작천 근처의 학생들은 작천이 넘쳐 등교를 하지 못하였다.

빠지지 않는 명소이다. 다음은 다산의「渡荊水」⁶²⁾이다.

林裏重茅屋	숲 속에는 초가집들 겹쌓여 있고
沙頭一桁船	물가에는 배다리 하나만 떠있네
峽開歸雁直	골짜크 트여 나는 기러기 바로 뵈고
波暖浴鳧娟	물결 따뜻해 먹 감는 오리도 곱네
上黨 ⁶³⁾ 孤雲外	외론 구름 너머엔 상당 고을 있고
華陽疊岫邊	첩첩 산중 끝으로는 화양동 있네
每從忙處誤	매번 망중한을 따르는 일 그르치니
那得領山川	어찌 산천 구경 두루 할 수 있을까?

형수⁶⁴⁾는 문의현에 소재하고 있다. 1980년 초반에 이 지역에 대청댐을 건설하여 현재는 수몰이 된 지역이다. 주변에는 九龍山을 배경으로 하여 현암사라는 사찰이 있고 청남대가 조성된 곳이 이곳 형수 근처이다. 청남대가 조성된 것이라면 자질구레한 설명 없이도 자연풍광이나 여러 地勢의 이로움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다산은 이곳 문의에 와서 형수를 건너며 주변 풍광을 제영하였다.

首聯에서는 구룡산의 깊은 숲속 언 듯 보이는 초가집의 정겨움과 형수의 나룻터에 작은 배 한척이 대어져 있는 평화로운 시골을 묘사하였다. 頤聯에서는 주변의 산세가 시원하게 트여 날아가는 기러기가 멀리까지 보이고, 형수 물에 먹 감는 물오리들의 한가한 풍경도 그림처럼 그려졌다. 頸聯에서는 문의 형수 저 쪽으로는 바로 상당이고, 산 너머는 화양동이 가까우니 충북 승경지를 두루두루 묘사하였다. 尾聯에서는 매번 아무리 바빠도 자신을 돌아볼 忙中閑의 틈을 내어 산천 구경 한다고 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승경들을 언제 다 둘러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 문의 형수의 승경을 제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충북지역 대표적인

62)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2.

63) 上黨 : 청주의 고향.

64) 충북 청원군 문의면 소재.

山水로 ‘俗離山·鶴江·荊水’의 제영을 통하여 충북지역 산수의 眞景과 秘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충북 제영시 작품내용을 ‘脫俗의 寺刹·交遊의 樓亭·眞景의 山水’로 분류하여 고찰하니, 충북의 地理·歷史·行政·宗教·教育·文化·人物 등 제반 분야의 진면모의 美學을 볼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내용양상 통하여 충북 제영시에 드러난 修辭的 美의 特質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Ⅲ. 修辭的 寫實美의 特質

충북 제영시의 수사적 미의 특질을 그 수사적 특질을 寫實美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영시는 소재의 대상에 대한 情·景을 작자의 氣로 빚어 낸 문자라 하겠다. 제영의 대상을 문자로 표출하려는 수사적 특징으로서 사실성이란 감각매체를 통한 대상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구성하여 그 대상에 대한 心象을 전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충북 제영시의 수사적 미의 특질로 寫實美를 먼저 李安訥(1571-1637)의 「題淸州東軒」⁶⁵⁾을 통해 살펴본다.

湖西一道四都會	충청도 도내 네 곳 고을 모여 있는데
淸在中央州崔雄	청주는 그 중앙에 있어 가장 웅장하네
朱崖 ⁶⁶⁾ 嶺擘九峯起	주애현 고개 나뉘어 아홉 봉우리 되고
赤峴 ⁶⁷⁾ 川吞三派通	적현 시내는 세 갈래 물 받아 들였네
城池 ⁶⁸⁾ 已變亂離日	성지는 변란이 일던 날 이미 변해졌고

65) 『東岳先生集』 卷21.

66) 朱崖 : 淸州牧의 鄕으로(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천민 집단 거주 특별 행정 구역) 朱崖라고도 하고 周岸이라고도 하였다. 지금의 청원군 문의면 구룡산 맞은 편 시탄진 쪽 지역이다.

67) 赤峴 : 지금의 괴반령 고개. 보은군 회인면에서 청원군 가덕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邑里猶存豪俠風 마을엔 아직도 호협한 기풍 남아 있네
 白頭杖節獨懷古 늙은 나이 부절을 가지고 옛 생각하니
 繞郭桃花春自紅 성곽 에워싼 도화 봄 맞아 절로 붉네.

이안눌이 청주의 동헌을 묘사하여 제영하였다. 首聯에서 충청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湖西’에서 ‘湖’는 제천의 의림지를 가리키는 말로써 ‘湖西’는 의림지의 서쪽으로 충청도를 의미한다. 이 호서지역에 ‘四都’가 모여 있다고 하였으니 四都是 충청도에 관찰사가 있던 곳으로 淸州·忠州·公州·洪州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제영한 것이다. 이에 ‘四都’의 명칭을 본 따 忠淸道를 公淸道·洪淸道라고도 불렀다. 청주 동헌은 지리적으로 충청도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頷聯에서는 청주 동헌의 주변 지역을 묘사하였다. 朱崖鄉은 淸州牧에 속해 있는 고을로써 주변에 九龍山⁶⁹⁾의 아홉 구비가 굽이굽이 펼쳐 있다. 赤峴은 오늘날 ‘피반령’이라고 명칭하여 매우 험한 고개였다고 한다. 피반령 고개 아래로 보은 속리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모여 금강 상류를 이룬다. 頸聯에서는 병란을 겪은 후의 상당산성의 모습과 산성 마을의 호방한 풍속을 그렸다. 尾聯에서는 늙어진 노년에 벼슬길에서 옛일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은 부질없는 일인데 여전히 봄 맞은 청주동헌 주변으로는 봄꽃이 붉게 피어남을 寫實的으로 제영하였다.

다음은 金昌翁(1653-1722)의 「鵲川無梁」⁷⁰⁾이다.

我過淸州境 내가 청주지역을 지나다 보니
 觀風一喟然 풍광 보고 길게 한숨이 나네
 誰爲懶明府 누가 태수노릇 게을리 하였나?

68) 상당산성의 연못으로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28-2 일원에 위치하고 있음. 예전에는 성 안에 다섯 개 연못과 여러 개의 샘이 있었고, 사찰도 세 곳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 다섯 개의 연못이 모두 합쳐져 큰 저수지가 되어 남아 있을 뿐이다.

69) 구룡산 : 청원군 문의면 소재.

70) 金昌翁, 『三淵集』 卷8.

民病涉寒川	백성들 고통스레 한수 건너네
斫脛傷仁酷	정강이 자르듯 어짐 상함 심하니
乘輿用惠偏	수레는 은혜를 치우치는 일이네
行人能殿最 ⁷¹⁾	행인 능히 목사의 치적 알테니
可畏豈非天	두려워 할 것 어찌 천도 아니라?

김창흡이 청주의 작천을 지나며 물을 건널 다리가 없음을 보고 民生의 苦를 그대로 直寫 하였다. 시의 전반부에서 깊은 물을 건널 다리가 없는 것은 태수가 정치를 게을리 해서임을 지적하고 길게 탄식을 한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이 이 작천을 건널 때마다 정강이를 걷어 올려야 할 테니 추운 겨울날 시린 정강이 만큼이나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미련에서는 『明心寶鑑』, 「省心篇」에 인용된 擊壤詩처럼 태수의 치적은 오고가는 행인의 입을 통해 저절로 아는 것이니, 어찌 옳지 못한 이치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며 작자가 청주 작천을 보고 백성을 위한 仁政이 펼쳐지지 못함을 直敘하여 제영하였다.

다음은 四佳 徐居正(1420-1488)의 「忠州萬景樓」⁷²⁾이다.

萬景高樓插半霄	만경의 높은 누각이 허공 속에 솟아 있어
登臨佳致儘難消	올라 보니 좋은 흥취 모두 소진 못하겠네
瀨川 ⁷³⁾ 綠接金灘 ⁷⁴⁾ 去	달천의 푸른 물은 금탄과 합하여 흐르고
鳥嶺 ⁷⁵⁾ 靑連月岳 ⁷⁶⁾ 高	조령의 푸른빛은 월악과 잇대어 우뚝하네
浩蕩白鷗盟 ⁷⁷⁾ 未熟	넓은 물결 백구와 맹약 ⁷⁸⁾ 익숙지 못해도

71) 『明心寶鑑』, 「省心篇」, “擊壤詩云 平生 不作皺眉事 世上 應無切齒人 大名 豈有鑄頑石 路上行人 口勝碑”

72) 徐居正, 『四佳詩集補遺』 3.

73) 瀨川 : 충주 월악산에서 근원하여 흘러내려오는 달천강.

74) 金灘 : 월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여울이 있는 곳이라 하여 금탄이라고 하였다함.

75) 鳥嶺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과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경계에 있는 고개.

76) 月岳 :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산면 (월악산국립공원).

77) 黃庭堅, 「登快閣」, “癡兒了却公家事 快閣東西倚晚晴 落木千山天遠大 澄江一

夷猶黃鶴賦 ⁷⁹ 堪招	황학은 시를 읊어 부를 수 있을 듯 하네
送迎南北何時了	이리 저리 오가는 일 어느 때나 마칠까?
山自蒼蒼水自遙	산은 저절로 푸르고 물도 저절로 흐르네.

위의 작품은 서거정이 국토를 돌며 지은 시에서 충주「만경루」를 읊은 작품이다. 首聯에서 만경루를 찾아와 올라보니 허공 속에 높이 솟아 마음에 쾌한 雅趣를 다 풀어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 흡족한 심경 속에 만경루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 진다. 頷聯에서는 ‘獺川’과 ‘鳥嶺’ ‘金灘’과 ‘月岳’의 지명을 그대로 댓구로 놓았다. ‘獺川’⁸⁰과 ‘鳥嶺’에서는 수달이 노는 깨끗한 물과 새들만 넘나드는 것 같은 험난한 鳥道의 길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直敍하였다. 깨끗한 물과 월악산의 맑은 기운이 그대로 표현 그려진 것이다. 頸聯에서는 서거정 자신은 벼슬을 버리고 전원에 은둔하겠다는 맹약에는 익숙지 못해도 여기 만경루에서 시를 읊으면 빈 누대에 黃鶴이 날아 들 것 같다 라는 흥취를 표현하였다. 尾聯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세속의 일에 얽매어 오고가기만 할 것인가? 이 만경루에 올라 깊은 悔恨을 한다. 산은 절로 푸르고 물도 절로 흐르는 만경루를 寫實的美로 제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충북 제영시의 수사적 미의 특질을 寫實美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V. 문제의 정리

본고에서 忠北의 題詠詩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정서 및 역사, 지역의 특

道月分明 朱弦已爲佳人絕 青眼聊因美酒橫 萬里歸船弄長笛 此心吾與白鷗盟”

78) 白鷗盟 : 『列子』, 「黃帝」. 전원으로 돌아가 살리라는 맹세.

79) 黃鶴樓 : 최호가 武昌에 놀러갔다가 황학루에 올라 지은 작품.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80) 서거정의 제영시를 통하여 ‘獺川’의 고유명사를 보니 오늘날 ‘達川’이라고 표기하는 명칭은 중간에 와전된 이름으로 추측된다.

성을 고찰 하였다. 충북지역에는 많은 史蹟·名勝·山水·樓亭·書院·鄉校·影堂 등이 있어 ‘生居鎭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勝景과 교육 중심의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이렇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충북을 노래한 제영시를 통하여 충북의 제반 분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제의 제기에서 필자는 충북 출생으로서 지역 제영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충북 제영시의 문예 미학 상에 드러난 면모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위상을 찾고자 함을 연구 목적으로 밝혔다. 연구 범위의 지역으로는 高麗時代 충북의 해당 縣으로 忠州牧에 槐州·堤州와 淸州牧의 淸州·鎭州의 주변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범위 내용으로는 충북지역의 寺刹·樓亭·山水를 제영한 작품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론에서 충북 제영시 작품내용의 樣相을 ‘脫俗의 寺刹·交遊의 樓亭·眞景의 山水’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① 脫俗의 寺刹 題詠에서는 報恩郡 法主寺·鎭川郡 地藏寺·槐山郡 空林寺의 제영시를 통하여 충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로서의 탈속한 공간의 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작품을 고찰하는 속에서 불교사상 사찰의 창사연기 설화 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② 交遊의 樓亭 題詠에서는 ‘槐山郡 億萬齋·淸風郡 寒碧樓·華陽洞 巖棲齋’의 제영시를 통하여 충북의 대표적인 교유의 누정을 고찰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누정에서 取景을 위한 정서가 마음을 비워 자연을 맞이 하듯 사람을 맞이하는 수양의 경지에서 儒·佛·仙 三道の 전통적인 사상의 면모를 고찰 할 수 있었다.

③ 眞景의 山水 題詠에서는 충북지역 대표적인 山水로 ‘俗離山·鵲川·荊水’의 제영을 통하여 충북지역 산수의 眞景과 秘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俗離山과 ‘八字’의 상관성으로 八庵·八臺·八峯·八大門·捌相殿·八相圖·八橋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천착을 통하여 佛家의 八正道와 儒家의 八條目이 수행의 귀결에서 합일되어짐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충북 제영시의 양상에 비추어 본 修辭的 美의 特質은 寫實性을 중심으로 탐착하였다. 제영시의 수사적 특질인 寫實美는 제영시가 대상에 대한 情·景을 작자의 氣로 빚어 낸 작품 속에서 대상을 寫實的으로 표출하려는 수사적 특징임을 고찰하였다. 李安訥의 「題淸州東軒」, 金昌翁의 「鵲川無梁」, 徐居正의 「忠州萬景樓」를 통하여 사실미가 제영시에 나타난 수사적 傳統美로 고찰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충북의 명승 유적지 및 역사를 제영시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논고의 전개과정에서 소재로 삼은 모든 지역들은 필자가 모두 답사를 하였고, 유년 시절부터 익숙한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충북의 대표 지역으로 칭송하는 곳과 지역인이 아니면 관심을 두기 어려운 지역을 아울러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충북의 제영시를 통하여 충북의 地理·歷史·行政·宗教·教育·文化·人物 등 제반 분야가 제영시를 통한 문학사상에 드러난 면모를 확인하고 그 위상을 가늠해 보았다.

<參考 文獻>

『四庫全書』 『金剛經』 『禮記』 『中庸』 『論語』
 『明心寶鑑』 『文選』 『唐宋詩全集』 『宋子大全』 『勿齋集』
 『終南叢誌』 『柏谷先祖文集』 『三灘先生集』 『蒼石先生續集』
 『古文眞寶』 『茶山詩文集』 『四佳詩集補遺』 『農巖集』 『芝峯類說』
 『柏谷文集』 『東岳先生集』 『三淵集』 『常山誌』

강석근, 「불국사 제영시 연구」, 『온지논총』 제28집, 온지학회, 2009.

괴산군지편찬위원회, 『괴산군지』, 전광인쇄, 1990.

김미선, 「상산의 어은팔경 제영시고」, 『청대학술논집』 10호,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7.

——, 「충효의 생겨진천 제영시고」, 『한국사상과 문화』 51집, 한국사상과

- 문화학회, 2010.
- 김석태, 「불가 사찰제영시의 문학적 지향」, 『고전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
시가문학회, 2009.
- 단양군, 『우리 단양지역의 일반개요』, 현대인쇄사, 1995.
- 단양향토문화연구회, 『단양향토지』, 도서출판 일중사, 1994.
- 문의지편찬위원회, 『문의지』, 현대문화사, 1992.
- 백연태, 「서거정의 유람시 고찰」, 『인문학연구』 30집, 충남대 인문과학연구
소, 2003.
- 연풍지편찬위원회, 『연풍지』, 회상사, 1994.
- 음성군지편찬위원회, 『음성군지』, 정화인쇄문화사, 1979.
- 제원군, 『내고장전통가꾸기』, 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 1982.
- 제천문화원, 『제천·제원사』, 고려정판사, 1987.
- 진천군지편찬위원회, 『진천군지』, 미진문화사, 1994.
- 청주시지편찬위원회, 『清州市誌』, 서울인쇄주식회사, 1976.
- 충주시 중원군, 『충주중원지』, 명문사, 1984.
- 충주시지편찬위원회, 『충주시지』, 학연문화사, 2001.
- 충청북도중원군교육구청, 『藥城春秋』, 삼일인쇄, 단기 4292.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忠淸北道誌』, 서울인쇄사, 1975.

Abstract

*An Aspect of Jeyeong Poetry in Chungbuk / Kim Mi Seon**

This study has considered the emotion and history and local specialty of district of Chungbuk through Jeyeong poetry in Chungbuk. In the Chungbuk area, there are many historical spots, a place of scenic beauty, mountains and waters, palace and pavilion, private school, a local school annexed to the confucian shrine, so called 'Living Jincheon the area which so many people wanted to live and which outstanding and beautiful scenery and the centering district of education. Therefore I would intend to grope the general field in Chungbuk through Jeyeong poetry which sang this beautiful and good for living.

First of all, in the proposal of problem, I am writer who was born in Chungbuk and I was interested in local Jeyeong poetry, and I clarified to the study aim which searched the phase of the Chungbuk area through aspect which appeared in literary art aesthetics of Jeyeong poetry. The areas of study scope are Goeju, Jeju of Chungjumok and Cheongju, Jinju of Cheongjumok corresponding town(Hyeon)in Chungbuk in Koryo period. They were restricted their outskirts. The contents of study scope was made in title of poem works of temple, palace and pavilion, mountain and water in Chungbuk area. So, through Jeyeong poetry in Chungbuk, I would take aim at the phase after confirming of aspect which appeared the literature history through Jeyeong poetry of general fields such as geography, history, administration, religion, education, culture, man and so on in Chungbuk.

【Key words】 Jeyeong poetry, Chungbuk, Jincheon, Chungjumok

투고일 : 5월 30일, 심사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
--

* Professor of Cheongju Univ. / hawoodang@hanmail.net